

엘살바도르에서 날아온 반가운 편지

해외불교칼럼

얼마 전 멀리서 반가운 이메일을 받았다. 지난 겨울 몹시 춥던 어느 날 길에서 잠시 마주친 두 젊은이 가운데 한 사람이 보내왔다. 그들은 동남아 어디에서 우연히 만나 서울까지 함께 왔다는 스위스와 엘살바도르의 배낭족 총각들이었다. 그런데 갈 곳을 못 찾아 꽤나 헤매고 있었다.

그저 스치는 사람들끼리 나누는 가벼운 인사 끝에 엘살바도르 총각이 말하길, 자기는 한국 불교에 관심이 많아 귀국하면 직접 수행을 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래서 인터넷과 스터디그룹을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해주었다. 우리는 합장도 하고 악수도 하고 헤어졌다.

그리고 여덟 달 남짓 지난 장마철에 뜻밖에도 그에게서 소식이 왔다. 그의 허락을 받고 공개한다.

“저를 기억하시는지요? 서울에서 스위스 친구랑 함께 만났던 엘살바도르의 루벤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연락처도 받고 스페인어로 얘기도 나눌 수 있어 참 즐거웠어요. 저는 그 후 한국에 좀 더 있다가 일본을 거쳐서 귀국했어요. 먼저 한 가지 소식을 나누고 싶군요. 저는 금년 초부터 엘살바도르 외무부에 인턴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막 불문에 들어섰답니다. 그리고 바쁜 불자가 되기 위해 제 나름대로 열심히 수행하고



한국불교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점차 깊어지고 있다. 사진은 연등축제에 참여한 외국인의 모습.

있어요. 엘살바도르에는 사찰이 없습디다. 그리고 불교모임도 아주 작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들과 함께 불경스터디그룹을 만들어 공부합니다. 또 저는 제 방에 작은 불단을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부처님 앞에서 홀로 예불을 올리고 불경도 독송하고 참선도 합니다. 저는 대승불교에 대해 좀 더 넓고 깊게 배우고 싶습니다. 제가 성급한 건지 모르지만 제 공부에 어서 어서 어느 경지에 이르러 참된 불제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갈망합니다. 그리고 저를 이끌어 주실 스승님도 모시고 싶습니다. 금년 연말에 휴가를 얻어 다시 아시아

여행을 하려는데 서울에 가면 좋은 기회가 있겠지요?”

엘살바도르는 오랜 독재와 내란으로 사회 전반이 아직도 피폐하고 근면 순박한 사람들은 집단정신외상에 가까운 후유증에 시달린다. 광적인 독재와 인간사상에 맞서 민중을 감싸 안던 오스카 로메로 신부님이 1992년 5월 미사 집전 중 살해를 당하여 세계인을 격분시킨 가톨릭의 나라다.

그리고 그 배경은 영화 ‘로메로’와 ‘살바도르’의 소재가 된다. 그곳 사람들은 병주고 약 주듯 독재의 근원이자 또 치유라는 양면성을 지닌 종교에 환멸을 느낀다.

이는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여러 나라들의 공통적인 현상이다. 마침내 그들은 불교를 통해 신앙적 대안을 모색한다. 착하고 멋지게 생긴 그를 떠올리며 답신을 보냈다.

“먼저 외무부에 취직된 걸 축하드립니다. 루벤 도반님의 맑고 고운 불심이 여기까지 전해져 옵니다. 불서를 비롯해 수행정진에 필요한 건 알려주세요. 우선 제가 스페인어로 녹음한 <반야심경>을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루벤 도반님께 한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군요. 불교는 학문보다는 깨우침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서두르지 마세요. 아서어서 보다는 천천히 꾸준히 정진하세요. 불가에는 지름길이 없답니다.”

그러자 그에게서 공감 답신이 왔다. “와, 이렇게 빨리 연락을 주시다니요! 게다가 수행하는데 도움까지 주시겠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서울에 가면 외국인들을 위한 불교프로그램에 꼭 참여하고 싶어요. 스님, 서두르지 말라는 충고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지난 29년 동안 불법의 지혜를 모르고 진흙탕 같은 현실과 미망 속을 헤매왔어요. 그런 제가 어떻게 천천히 할 수 있었어요?” 하긴 그 또한 울은 말이다.

도전은 청춘의 특권이자 의무다. 루벤 도반의 심그러온 불심이 마치 진흙탕 속에 갇혀 있던 연꽃송이와도 같다. 그 고운 향기 날리릴 때 펼쳐지길 바란다.

성휴 스님

심적 고통이 창작의 결실로

☆월드스타 불심도 스타 | 엘리스 워커 ❸

엘리스 워커는 1944년 미국 조지아 주의 이턴튼에서 소작농의 8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아프리카계 미국 인이 대개 그렇듯 그녀 역시 아프리카 흑인, 체로키 인디언,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백인의 피가 뒤섞인 다중혼혈이다.

본디 활발한 천성의 그녀는 어릴 때 오빠와 카우보이·인디언 놀이를 하다 장난감 총에 맞아 오른쪽 눈을 거의 실명하면서 폐쇄적으로 바뀐다. 그러나 다른 한편,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진 그녀는 일상사에 직접 끼여들기 보다는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객관의 시각을 지니게 된다. 게다가 시와 단편을 쓰게 되면서부터는 자신도 모르게 작가 수업에 들어간다. 그렇듯 거의 은둔생활을 하면서도 그녀는 고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애틀랜타에 있는 스펠만대학에 진학한다. 그녀가 고향을 떠날 때 흑인 이웃들은 차비로

청을 받아 어머니가 주신 가방을 들고 유럽으로 떠난다. 어머니의 염원대로 그녀는 자유의지를 지니고 세계인들과 만남에 처음 나선 것이다. 이듬해 8월 전국 각지에서 인권운동 지지자 20여만 명이 모여든 워싱턴의 대군중집회에 참석한 그녀는 ‘나예겐 꿈이 있습니다’라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명연설에 전율적인 감동을 받는다.

하지만 스펠만대학의 은사들은 그녀의 문학적 천재성이 자칫 정치사회 운동에 낭비될 바를 우려하며, 그녀 역시 그들의 조언을 따르기로 한다. 이윽고 그녀는 사라 로렌스대학으로 전학하여 장학금으로 공부를 계속한다. 진보성향임에도 고차 몇 명의 흑인 남학생밖에 없던 그 대학이 흑인 여학생을 받아들인 건 매우 예외적이었다. 재학 중 시인 무리엘 루키셔와 작가 제인 쿠파 등에 심취하며 필재를 다듬던 그녀는 다시 유럽과 아프리카

사라 로렌스대학 첫 흑인 여대생

인공유산 고통 겪고 첫 작품 출간

로 여행을 떠나다. 그녀 귀국 후 자신감을 잃은 그녀는 사흘 밤 동안 면도날을 베개 밑에 놓고 자는 등 극심한 자살충동에 시달린다. 그리고 그 괴로움에서 헤어나고자 미친 듯 창작에 매달린다. 훗날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글쓰기를 통해 모든 샅되고 그릇된 입을 뱉쳐내고 싶었다.”

그 후 몇 주 동안은 그녀의 일생에 큰 전환점이 된다. 그녀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 인공유산을 한다. 그리고 그 심적 갈등과 고통은 고스란히 창작의 희생에 뒤이어 새 생명으로 피어난다. 그녀의 첫 작품은 이듬해 출간된다. <죽음과 더불어 지속적으로>라는 제목 자체가 당시 그녀의 심정을 고스란히 드러내 보인다. 예상을 훌쩍 넘긴 지 금껏 그 괴로움을 안고 사는 그녀의 독백이다.

“그래요. 난 엄마가 문체투성이란 걸 잘 알아요. 게다가 감추려 하지도 않으세요. 바로 그게 엄마가 제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지요.” 이제 엘리스 워커가 자기 어머니를 두고 하는 말일까? 아니면 잠시 그녀의 몸 안에 머물렀던 태아가 그녀에게 하는 말일까?

성휴 스님

생활영어로 읽는 불교

“Haha, maybe, to save it is my nature”



Two monks were washing their bowls by the brook when they saw a scorpion drowning. One monk immediately scooped it up and set it upon the bank.

“하하, 글썄요, 남을 구해주는 건 소송의 본성인가 보요”

while doing so, he was stung. He went back to washing his bowl and again the scorpion fell in. The monk saved the scorpion and was again stung. Much worried, the other monk him. “Why do you save the scorpion over again when you know it’s nature is to sting?” “Haha, maybe,” the monk smiled, “to save it is my nature.”

두 스님이 개울가에서 바리때를 행구는데 전갈 한 마리가 물속에서 허우적

했다. 그러자 한 스님이 얼른 건너에서 물가로 옮겨주다가 전갈에 쏘이고 말았다. 다시 바리때를 행구는데 그 전갈이 또 물에 빠져 허우적했다. 그걸 또 구해주던 스님은 또다시 전갈에 쏘이자 곁에 있던 스님이 걱정스레 물었다. “왜 그 녀석을 거꾸 구해 주시요? 남을 쏘는 게 전갈의 본성인데 말이요.” “하하, 글썄요, 남을 구해주는 건 소송의 본성인가 보요.”

변안성휴 스님, 그림·이태수

“전통·현대교육 모두 필요”

달라이 라마 뉴욕서 법문

달라이 라마는 모든 이들이 각자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유지하되 항상 외부 개방적이라야 한다고 말했다. “21세기의 불자는 전통가치관과 현대교육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금년 73세인 그는 7월 18일 6000여 명이 모인 뉴욕의 라디오시티 뮤직홀에서 사성제를 주제로 한 법문을 통해 이와 같이 말했다.

“중생은 육체적 쇠락은 피할 수 없으나 심성을 다스려 성불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심성은 종교지도자의 축복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의지에 따라 추슬러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히말라야 산악지역 불자들의 순수한 불심을 칭찬하고 특히 돌포, 세르파, 무스탕 등 여러 부족들의 불자연합인 ‘히말라야 불자협회’의 종교 문화적 연대와 상호협력을 기원했다.

출처: PY, BCT

覺性 스님 「註心賦」

강설대법회

- 마음을 노래하다 -

대한불교 조계종 제14교구 본사 梵魚寺에서는 해제철 정진기간을 맞이하여 원조 각성(圓照 覺性) 스님을 법사로 모시고 『註心賦』 강설대법회를 갖습니다. 『註心賦』는 중국 송나라 명당 연수선사의 저술로 禪家에서 널리 알려진 마음을 노래한 글로서 『宗鏡錄』 100권을 압축 요약한 명문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강설을 하실 각성 스님은 탄허 대종사의 전법제자로 유·불·선 삼교에 통달하신 이 시대 최고의 대법사이십니다. 이번 『註心賦』 강설대법회는 여태껏 접하지 못한 회유의 법석으로 사부대중의 안목을 드높일 기회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두루 동참하시어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불기 2552(2008)년 8월 17일(음력 7월 17일)부터 일주일 간 매일 오후 2시 ~ 5시(3시간)
- 장 소 : 범어사 침계루 • 대 상 : 사부대중(선착순 100명)
- 수강료 : 5만원 (교재비 포함)
- 문의처 : 범어사 종무소 (051)508-3122~7
범어사 원주실 (051)508-3636

대한불교 조계종 第14教區 本寺 禪刹大本山 梵魚寺 주지 正如 합장

스님! 빙의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빙의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전생, 빙의, 자기 최면, 치료최면 (최면 시술사 과정)

- 교육일 : 8월 12일 화요일반 • 교육시간 : 오후 1시
- ▶ 교육기간 : 6주(24시간) ▶ 모집인원 : 선착순 10명 ▶ 교육비용 : 60만원 ▶ 대상 : 스님, 포교사, 불자

특기사항

1. 10명의 소수 정예 엘리트 교육
2. 6주 24시간의 최단기 집중 현장 교육
3. 상상할 수 없는 최소의 교육 훈련비
4. 개인 교습식의 일대일 교육, 책임 교육
5. 현장에서 바로 활용 할 수 있는 실전 교육
6. 새로 개발된 테크닉 수시로 전수하는 평생 교육

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유일한 곳

수행과 포교 또 중생 구제에 바쁜 스님들께 귀의 합니다. 소송은 스님들께서 시간에 쫓기시고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스님들의 사정을 너무 잘 알기에 모든 거품을 빼고 최단기, 최소 교육비로 보시 하고자 합니다. 소송은 자리이타의 정신과 회향하는 마음으로 본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마하 반야 바라밀 - 무초 정락 합장 -

(사) 유마 정신 건강 최면 연구소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1번출구 애경백화점 맞은편 세일빌딩 401호 ☎ 02) 763-0661~2

★ 최면을 배우시고도 시술을 못하시는 분, 자기최면이 안되는 분 개인지도 ★